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2월 6일(금)
--(음력 11월 6일)--
Пятница
6 декабря 2024 г.
№ 47 (1211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1월 30일 사할린에 도착한 제드 모로즈(추위 할아버지)의 기차가 네벨스크 기차역에서 첫 행사를 선보이고, 일린스코예, 포로나이스크, 티몹스코예, 노글리키, 돌린스크를 경유해 12월 2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했다. 이날 모여든 수많은 관객들에게 기차 무대에서 겨울 마법의 주인공인 추위 할아버지와 스네구로츠카(백설공주), 추위 할아버지의 조수들이 동화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 예산 수익 20억 루블리 까지 증가

사할린 주두마가 9개월간 올해 예산 집행을 발표한 가운데 회계감사원의 정기적 감사 결과가 12월 3일에 열린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주 회계감사원의 감사관인 알렉산드르 리트워네프가 두마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입에 따른 집행은 확정된 계획의 96.2%인 1,777억 루블리를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익은 20억 루블리 이상이 증가했다. 주요 세입액은 대륙붕 석유·가스 기획과 개인 소득 및 기업이익의 세수에 따른 생산 배당에 대한 협약 이행에서 정부의 생산성 수익률로 들어왔다.

사할린주 국고에 무상으로 들어온 104억 루블리 이상이 전체 지표에 기여한 가운데 연방 예산 보조금 및 정부기관들의 예산 변경에 대한 말들이 거론되고 있다.

사할린, 무명용사의 날에 <영웅> 애국 포럼 개최

12월 3일(화) 무명용사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정부와 '러시아 탐색활동' 사할린 지부가 주최하는 '영웅' 애국 포럼이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대조국 수호 전쟁에서 전몰한 장병들을 추모하며, 특히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과 특수군사작전 지역 및 조국 수호 시 전몰한 영웅들을 영구적으로 추념하는 문제들을 논의했다. 사할린주 부지사인 세르게이 그레베뉴크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환영사를 대독했다.

'영웅' 애국 포럼의 일환으로 무기와 특수 장비 및 군복이 전시되었고, 남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영구적 추념 문제에 대한 강연도 조성되었다. 특히 특수군사작전 지역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공적에 관심을 기울이며, 포럼 참가자들은 탐색부대 구성과 박물관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할린 선수, 전국 특별 올림픽아드에서 26개 메달 수상

12월 3일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 전국 특별 올림픽아드대회에 출전한 사할린 선수들이 여러 동계스포츠 종목에서 2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 국내 30개 지역들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선수 400여명이 출전해 우승을 두고 경쟁했다.

대규모 경기에 사할린주의 네벨스크, 돌린스크, 스미르니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약 15명의 대표 선수들이 참가했다. 사할린 선수들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노슈잉(스노슈즈 신고 달리기) 종목에 출전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매해 12월 5일은 러시아에서 자원봉사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봉사에 사심없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중년층과 노년층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연합했습니다. 우리의 자원봉사자들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대규모 행사에 참가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돕고, 대규모 자선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동향인들을 적극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학업이나 일로 바쁜 자원봉사자들은 시간을 내어 최전선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장병들에게 소포로 보낼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음으로 우리는 공동의 승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자비와 공감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조국을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창조적 에너지와 복과 건강, 행복,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2025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설명회

주최: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장소: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강당

일시: 2024.12.18. (수) 15:00~17:00

주지사,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대규모 장비 보급

새로운 특수 장비와 군 보급품이 사할린에서 돈바스에 전달됐다. 특수군사작전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할린의 장병들은 조만간 무인기와 전자전 기기를 보급받게 된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68군단의 사령부와 만나 사할린의 장병들에게 장비를 보급하는 문제들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는 적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 드론 격추 장비를 최전선으로 보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우리 장병들의 모든 요청을 듣고 있으며, 군 사령부의 동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사할린의 장병들에게 행

운을 빌며, 속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우리가 승리를 기다린다고 전해주길 바란다. 아직 그들은 조국의 이익을 수호하며, 자신의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고자 싸우고 있다. 우리는 장병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특별 대출프로그램과 주 지원정책을 통해 이들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에서는 특수군사작전지역에 정기적으로 지원 보급품을 배송하고 있다. 예전에는 최전선으로 디젤발전기, 최신 드론, 적의 드론 격추시스템, 비포장도로 차량, 미니 굴착기, 다른 특수 차량과 군 장비들을 보급해왔다.

주지사, 사할린 주민들과 직통전화로 소통

주지사와의 실시간 직통전화는 12월 10일(화) 15시에 'OTB-사할린'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브콘타테'의 사할린주 정부 공식그룹들과 '사할린 및 쿠릴열도(Sakh.online)' 정보사이트에서 소통이 진행되어 주지사는 실시간으로 사할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십 개의 질문들에 답변할 예정이다.

문자 방송은 '리마렌코 브리프(Brief)' 주지사의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진행되며, 전화(8(4242) 670-391)로도 주

지사에 질문을 남길 수 있다. 접수는 12월 3일(화)부터 시작된다. 이외에도 주지사와 지역 정부의 소셜 네트워크와 피드백 플랫폼을 통해 <직통전화> 표시로 문자나 영상 형식으로 질문을 접수한다.

텔레그램의 '오드노클라스니키(한반)'와 '브콘타테(ВКонтакте)'에서도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계정에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직통전화를 건 사람들의 요청은 처리되며, 질문자들은 반드시 답변을 받게 된다.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

자기 계발을 위해 늘 도전하며, '나'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고르지엔코 알레리아 대학생

올해 7월 초에 사할린에서 '극동 지역 미디어 삼미트' 포럼이 열린 가운데 새고려신문사 코너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 우리 신문사 코너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고르지엔코 알레리아(애칭 레라) 여대생을 만났다. 사전에 서로 사정상 만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학생은 우리 신문 코너를 찾아온 관객들에게 사할린의 유일한 한민족지를 소개해야 했고 그리고 민족신문이어서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첫 인상이 좋았다. 레라는 어머니는 한인이고 아버지는 러시아인이다. 이날 레라는 외할머니가 선사한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나왔다.

한복 입을 줄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관객들에게 나누어주는 때에 대한 정보와 새고려신문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었다. 행사의 첫날이 신문 마감일이었다. 행사 취재를 하고, 자원봉사자 레라가 찍힌 사진이 신문 지상에 올랐다. 다음날 새로 발간된 신문을 들고 행사장에 갔더니 신문을 가지려는 사람이 꽤 있었다.

"우리 레라, 우리 레로츠키가 나온 신문을 좀 주세요."라고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년의 한 여성분이 다가왔다. '레라 할머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며, 같은 봉사자라고 대답했다. 레라가 모든 관객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도 잘 챙겼다. 우리 신문사로서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해주어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후 레라는 신문 75주년 기념 러시아어 에세이 쓰기에도 참가했고, 신문사가 주최한 '사할린의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하여'란 만남 행사에도 관객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1월에 사할린 소식을 찾다가 '2024 러시아 올해의 대학생'이란 경연대회 사할린 지역 최종 단계에서 고르지엔코 알레리아가 '사회활동가' 부문에서 우승하고, 사할린 대회 전체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 바로 레라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레라를 취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레라와 인터뷰 약속을 잡은 날은 12월 3일 마침 그날은 레라가 22세 되는 생일이였다

이날 그녀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러시아 통합당' 사할린 지부에서 있는 수어식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자원봉사자 레라는 돌린스크 구역에서 태어나 브즈모리에 마을에서도 살다가 초등학교 때는 아니와에서 살았고, 중·고등학교는 돌린스크에서 마쳤다. 그녀의 가족(엄마, 할머니, 여동생들)은 여전히 돌린스크에 살고 있다. 레라는 대학생이 되어 독립해 현재 영주귀국한 삼촌의 집에서 살고 있다.

레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취미는 독서로 많은 시간을 즐기며 보냈다. 그래서 학교에서 최우



등 졸업장과 금메달을 받은 터라 전공을 자유로이 선택해 출판업과 관련된 일을 하길 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할린국립대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는 '역사 및 사회학 교사' 전공을 선택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데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레라는 이야기했다. 자원봉사활동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계몽과 교육에 관한 기획이 많았다. 대학에 입학하자 '러시아 대학생 활동과견단' 단체의 사할린국립대 사범 활동과견단에 가입했다. 이 단체에서는 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문제를 담당하고, 학생들의 휴식과 교양을 위한 야영캠프(숙박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는 워자티(학생 교육 및 활동을 담당하는 청년)를 준비한다. 레라는 이미 3년 '오케안' 청소년 야영센터(블라디보스토크 외곽에 위치)에서 워자티(

교육자)로서 활동한 경험도 있다. 거기에 과외기간은 1년에 거의 6개월이다. 한편으로는 대학 공부에 방해가 좀 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서 학업도 이수를 잘 하고, 모든 시험도 치르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도 항상 받고 있어 이번에는 과목마다 5점만 받아 인상된 장학금을 받고 있다.

올해 봄에는 사할린국립대의 대학생 사범 활동 과견단 단장(본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레라의 노력과 실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전국 여러 지역에 개최된 다양한 교육 포럼에 참가하고 우승도 여러번 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자원봉사자로서 그는 모스크바 상설 국민경제성과 박람회에서 열린 '러시아' 전시회의 사할린의 전시관에서도 활약을 했다. 사할린의 매력을 보여주고 관광 유치에 관한 활동교실도 진행했다.

알레리아는 새로운 지식과 활동들에 의욕이 많은 사람이다. '오케안' 캠프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댄스 연출도 하고, 아이들에게 댄스를 가르쳤다. 그리고 대중행사 조직과 진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 레라는 사할린국립대에서 두 번째 전공으로 '미디어'를 택했다. 2년 과정이었다. 그래서 비디오, 사진 촬영에도 관심이 많다. 여러 콘텐츠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 활동 과견단 동료들과 함께 교육학적으로 유용한 리더 방법을 개발해 왔다.

"우리 팀이 선정한 책, 영화, 댄스, 음악 등을 포함하는 17가지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챗봇을 만들었어요."라며 자신의 통료들과 개발에 성공한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했다.

레라는 자신이 한인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엄마의 성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지에 관심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와 할머니 덕분입니다. 엄마는 법률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미성년 담당 경찰관입니다."라고 레라가 말했다.

대학졸업을 앞둔 알레리아는 앞으로 사할린국립대 대학원에서 교육상담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꿈도 갖고 있다. 겸손하면서도 자기 의지를 힘차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레라는 '나'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잘 쓴다. 자원봉사자의 정신이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생활에 배어있다.

오는 12월 15일 알레리아는 '2024 올해 대학생' 대회의 전국 최종 단계에 참가하기 위해 6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떠난다.

매일매일을 소중한 자신의 삶으로 엮어가며, 어둠을 헤치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레라에게 파이팅을 보낸다.

(배순신 본사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대표팀, <기술전문가들> 챔피언대회 결승에서 4개 메달 획득

11월 30일 <기술전문가들> 챔피언대회 결승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대히 마무리된 가운데 사할린주의 '기술전문가' 대표팀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금메달, 은메달 각각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사할린의 미래' 선도직업훈련센터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중등직업교육 분야의 획기적 행사에 전국 89개 지역들과 우호국들에서 온 800명 이상이 참가했다.

메달 수상자들은 'CNC(컴퓨터 수치제어) 선반 작업' 부문에서 일리아 로마노비츠 페도소브가 금메달을, '항공운송 서비스' 부문에서 예브게니야 시마코와가 은메달을, 'BIM(빌딩 정보 모델링) 정보모델링' 부문에서 나마스 카밀로브와 '배관 및 난방' 부문에서 올렉 예브도키모브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기술전문가> 챔피언대회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 산업을 위한 인적자원의 잠재력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 러시아의 활동이며, 고용주들의 요구를 고려해 중등직업교육에 현대적 기술을 통합하는 것은 러시아의 기술적 자주권과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시킨다.

Сахалинская сборная завоевала четыре медали на финале чемпиона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ы»

Торжественно завершился финал чемпиона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борна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казала отли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завоевав золото, серебро и две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Центра опережающ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а».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в сфере среднего профобразования собрало более 800 конкурсантов из 89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и ряда друже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Илья Романович Федосов — золото в компетенции «Токарные работы на станках с ЧПУ»; Евгения Симакова — серебро в компетенции «Сервис на воздушном транспорте»; Намаз Камилов — бронза в компетенции «Технолог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BIM»; Олег Евдокимов — бронза в компетенции «Сантехника и отопление».

Чемпионат «Профессионалы» — всероссийское движен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развитие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Интеграция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 учетом требований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Росси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과 방문객들, 도시 관광에 초대

12월 3일(화)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광센터에서 일련의 명절행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도심 관광을 비롯해 시민들은 다양한 활동교실과 영화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도시야경 불빛', '새해 다시시작' 관광은 마법 같은 분위기에 스며들게 할 것이다. 문화관광센터의 안드레이 수호노스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명절 전과 새해 기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과 방문객들은 도시를 따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산책을 나가고, 관광 도전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며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로운 예술적 시설들이 명절의 특별 조명을 설치하면서 도시는 활발하게 명절을 준비하고 있다. 정한 구역을 다니며 '도심의 야경 불빛' 새로운 프로그램의 경로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찬란한 풍경을 사진 찍을 수 있고, 도심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도 알아볼 수 있다. 올해 우리는 '다민족적 새해' 도전게임을 조성해 도심의 소공원들과 예술 공간들, 시공원, 아파트 벽화들 등 도심의 주요 경로를 따라 다니며 진행한다. 가장 빠른 참가자들에게는 레스토랑, 카페, 여행사들이 협찬하는 증서를 받게 된다. 그를 참가자들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새해 다시시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민들은 액체 아크릴 물감으로 추상화를 만드는 '플루이드 아트' 활동교실과 밀랍으로 성탄 양초컵 만들기 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도심 관광 안내자들은 '영화 속 사할린주 - 제 2의 배역(배우의 말과 행동에서 직접 심리적, 정서적 표현을 찾아보는 역할)'이라는 주제로 영화 강연이 마련되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화들에서 사할린 지역이 촬영지로 선정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глашают на экскурсии по городу

С 3 декабря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пускает серию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роме экскурсий по гор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а также побывать на кино-лектории.

Проникнуться атмосферой волшебства позволят экскурсии «Огни ночного города» и «Новогодняя перезагрузка».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Андрея Сухоноса в канун праздников, а также в период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южно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могут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автобусных и пеших прогулок по городу, экскурсионных квестов.

— Сейча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собенная праздничная иллюминация,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новые арт-объекты, город активно готовится к празднику. Именно по этим локациям пройдет маршрут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Огни ночного города».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сделать яркие фотографии и узнать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фактов об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этом году мы создали квест «Этнический Новый год», он пройдет по ключевым точка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скверам,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м, парку, муралам. Самые быстры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т сертификаты от наших партнеров – ресторанов, кафе, туроператоров. Для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групп мы предлагаем «Новогоднюю перезагрузку», которая будет интересна людям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ндрей Сухонос. Кроме этого, горожане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флюид арту, изготовлению рождественских свечей из вошины. (8면에 계속)

밝은 에너지를 심어준 '사할린 K-pop 댄스 페스트'

지난 11월 29일(금) 사할린 K-팝 댄스 페스트)축제가 관객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차브리'영화관에서 펼쳐졌다. 이 케이팝(K-pop) 축제는 사할린국립대학교 동양학부가 이미 2012년부터 전통적으로 주최해온 인기 있는 행사다. 올해 제11회 케이팝 페스티벌은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이 실시한 '아시아와의 대화' 동계 국제학교 프로그램의 마무리를 받게 장식했다.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이 축제는 해마다 더 많은 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번 행사에 한국 문화와 케이팝 음악 팬은 물론, 축제 후원자, 러시아 주요 대학의 교수와 학생, 한국·중국·몽골의 교환학생들도 참석했다.

이번 무대에서 경연을 벌인 11개의 댄스 그룹들은 놀라운 퍼포먼스를 준비해 관객들에게 즐거운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댄스 경험이 풍부하며 최고의 거장으로 심사할 맡은 '부정맥'댄스스튜디오 대표인 최 예카테리나 안무가, 주요 지역 행사 무용 감독인 알렉산드르 예고르 안무가, TNT에

서 댄스'프로그램 3, 5시즌 참가자인 김일남 '플로우모션'댄스스튜디오 설립자는 해마다 발전하는 케이팝축제 참가팀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은 두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소형 팀'부문에서는 사할린주한인청년회 소속 '퍼펙트 센스' 팀, '대형 팀'부문에서는 '엑스레이(X-RAY)'팀이 우승했다.

또한, 축제 참가자와 관객들은 이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케이팝 팬들이 가장 탐내는 상품, 즉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최신 앨범 발매 추첨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날 축제를 후원하는 업체들의 상품권도 추첨되었다.

매년 열리는 '사할린 케이팝 댄스 페스트'는 기쁨을 선사하고 밝은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행사로서 현대 한국 문화를 즐기는 청소년들 가운데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최자로서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의 동양학과 교수를 비롯해 모든 주관자 및 후원자들의 노고가 많았다. 2025



년에 열릴 '사할린 K-pop 페스트'도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지식.수석들>연방 계몽마라톤 진행 가능성 논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러시아 '지식'협회 부회장 게오르기 부드니와 실무회의를 가진 가운데 2025년 사할린주에서 계몽기획 발전에 따른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사할린주가 극동지역의 문화와 학문의 중심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는 80만m² 면적에 수업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 갖추어질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테크'캠퍼스가 건설 중에 있으며 이곳으로 가장 다양한 지식 분야의 학자들과 교사들을 초빙하고 있다. 우리는 자체 IT전문가를 양성하는 '21학교'를 개설하고, 무인기 기술센터를 건립하며, 수소 분야를 개발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은 문화 분야에서도 지적 매력의 중심지가 되어 2개의 오케스트라가 창설되었고, 슈킨 분교가 개교했으며, 오페레타 극장 설립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계몽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앞에 놓

인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지식'협회는 이 우리의 친밀한 협력자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지식'협회의 게오르기 부드니 부회장은 사할린주 감독위원회와 지역 지부가 창설된 국내 우수 지역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비해 사할린 지역에서 계몽활동의 활발한 움직임은 1.5배나 증가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5월 사할린주에서 <지식.수석들>연방 계몽마라톤 개최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행사는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연방 계몽마라톤은 2021년5월에 조성되었고, 이 기획은 정부 고위관료들과 청년 간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인기있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며, 러시아의 새로운 지역들의 주민들도 계몽마라톤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러시아 '지식'협회는 1947년에 설립된 소비에트 사회단체에서 시작돼 자신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재 현대적인 디지털방식으로 계몽활동을 수행하는 협회의 활동을 재개시킨 가운데 올 9월에는 사할린주 정부와 러시아 '지식'협회의 지도부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사할린주는 사회적 기관의 기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올해 사할린주 학부모위원회의 2개 기획이 러시아 '지식'협회와 러시아 연방 계몽부가 발표한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하는 경연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 '지식'협회는 올해 사할린에 대해 촬영한 다큐 영화를 개봉할 예정이다. 계몽협회의 촬영팀은 사할린의 우수 기업들과 주요 기관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열병합발전소와 '제플리츠니' 숲호즈(국영농장), 수소생산 시험공장 등을 방문해 촬영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그대여 / 장재인

오늘도 가고 어제도 갔다
시간만 가고 마음은 남는 자리
내일을 캐면 토라지는
그대여 여기는 지금 어디쯤인가

보는 이 없어 아직은 수줍은
헬썹해진 뜻 언저리
어이해서 무쇠 같던 몸
안개처럼 녹아내리고
오늘도 생각지 하나
거털이 나지만 아픔을 잃어
저어하는 고목

그대여 나는 이제 누구인가 대답하라
지금 여긴
마른 바람이 종일 덜컹거린다
도시를 휘감은 산줄기
거대한 솟덩이로 꺼지며
죽는 연기를 뿜어대고

무덤 같은 살덩이들이
감히 나를
셋길 모르는 천치 바보라고
빈정대다 잠이 들었다
깜깜해질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어두움에 빛나며
나는 물노니
그대여 대답하라,
"기억해 주시기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의 가수 장재인 말고, 시인 '장재인'입니다. 참,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주말 부부였답니다. 아내 분이 어린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강원도



에서 서울로 향하다 그만 버스가 섬강교 아래로 추락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지요. 벌써 삼십 년 하고도 다섯 해는 지났겠네요. 닥새 후 아내의 주검이, 그리고 13일 후 아들의 주검을 찾았다는 기록입니다. 시인이자 남편 장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겠지요. 남편은 서울에서 시를 쓰며 고교 영어 선생을, 아내는 강원도 홍천에서 고교 불어 교사를 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도로 사정도 많이 좋아졌고, 터널이 많이 생겨, 꼬불꼬불한 길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고속버스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장재인 시인은 어린 아들의 주검까지 확인하고 이를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고 현장 인근이었다지요. 혹시라도 죽어 가족과 함께 하고픈 바람이었겠지요. 한 때는 신문을 읽는 아침, 뉴스를 노련하게 바라보는 시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신문을 멀리하는 중입니다. 인터넷 뉴스 역시 최대한 멀리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씁쓸하다기엔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아 서요. 장재인 시인 그리고 시인의 가족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여야 '尹탄핵안' 대치...

"통과 막겠다" "반드시 탄핵해내야"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찬성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이탈표 극대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필수적인 여당의 이탈표를 놓고 여야의 수 싸움이 개마했다.

이날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험적이지만, 선분은 탄핵을

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주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에 대해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 대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당으로선 일단 탄핵안 부결을 위한 1차 고비는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탈표 우려는 여전히 잠복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표결 집단 불참 등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 탈당'을 놓고는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초·재선 의원 5명은 회견에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원본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험·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한 여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 эссе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пуск

3 место, Ким Вон Дя, 59 лет

Арка телепорта ярко заискрилась, приглашая меня к перемещению. С сожалением подумала, что опять будет трясти и подташнивать. Так себе ощущения... Потом еще приходится в норму минут сорок, но выбирать не приходится: посетить семью в прошлом можно хотя и бесплатно, но только через особый выделенный портал, при этом опции комфорта полностью недоступны. Конечно, цены на услуги телепортации слегка кусаются, но, поужавшись, за полгода получится накопить на чуть более удобное перемещение. Но овчинка выделки не стоит: большой разницы вы не почувствуете. Поэтому крепко сжав зубы, смело шагнула в сердце световой воронки. С того самого момента тело мне уже не повиновалось: мозг сдавило так, что появилось ощущение, что моя бедная голова сплюснулась, скелет распался на отдельные детали, а кровяные клетки шлейфом следуют за рою моих суставов и позвонков. Перед глазами один нереальный образ сменялся другим: крупные шахматные клетки уменьшались до микроскопических и наоборот, а затем вытягивались в трубу, из которой вылетал свирепый разноцветный дракон, выжигая синим огнем прекрасные поляны с экзотическими гигантскими цветами, откуда испуганно выпархивали феи, подобные Дюймовочке, но огромный кит, ударив хвостом по воде, затушил вредоносный огонь.

«Вы прибыли к месту назначения», - как сквозь беруши дошло до моего затуманенного сознания. Открываю глаза и почти по стеночке ползу до комнаты ожидания. Как обычно, шахматы, драконы и феи отстали от меня через полчаса с небольшим. Так, всё по плану: я вернулась в прошлое, мне 14 лет, и сегодня 1 июня - первый день каникул, 8 утра, в мо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целых 24 часа.

Мой родн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орговая улица (пока еще, скоро переименуют в Крюкова). За соседним домом улица Дальняя, а через дорогу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всё детство прошло рядом с ней, на ней и за ней. Играли и хулиганили. Всякое было. А сейчас стою у нашей калитки, и сердце щемит от воспоминаний: слева - угольник, а справа - дом, высокий, с большими окнами, светлыми стенами (брусля не успели потемнеть, потому что стройка закончилась всего два года назад). Запираю калитку на щеколду и прохожу во двор. Почти у самого крыльца голову кружит аромат: пять огромных пушистых кустов любимой маминной сирени. Неожиданно под ноги выкатывается рыжий бочонок с радостно развевающимся хвостом. Пират, Пиратик, мой дружок, старичок уже, мы родились в один год. Более умного пса не встречала. Да, питаешься ты у нас знатно, в теле - мамуля старается.

А вот и мама, с утра хлопочет по хозяйству. Пойду помогу. С огорода она меня прогнала: «Я здесь сама закончу, а ты лучше стиркой и уборкой займись». Блин, не люблю убираться, но чапаю домой. По пути заглянула к отцу в мастерскую, залюбовалась: точеная ножка под столешницу уже готова, я даже шкурить ее помогала. Сейчас отец обжигает ее, а потом покрывает мебельным лаком.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не хуже, чем в магазине. Почти все стулья, столы, шкафы и полки в доме его «золотых рук» дело.

На кухне запустила стиралку и приступила к уборке. Что? Машинка уже отключилась? А я всё еще на второй полке книги протираю уже полчаса? Ну, мне кажется, я эту историю еще не читала. Она короткая. Сейчас быстро пролистаю и продолжу убираться. «Да ё-маё», я эти фотки месяц назад искала, забыла, что сюда забросила. Ой, это ж библиотечная книга. Надо завтра не забыть отнести в школу. «Что, мам, сегодня гости будут? Я мигом (Ага, только начать и закончить...). А кто придет?»

Пока мы с мамой готовим закуски (естественно, мама - шеф, а я на подхвате), папа со знанием дела творит на печке за домом борщ, нас туда не подпускает. Опасается, наверное, что кто-то нарушит магические потоки, и борщ волшебным не выйдет. Но мы-то знаем, что папин борщ всегда самый-самый. И всем родным и знакомым это известно.

А вечером в доме становится тесновато, шумно и весело. Папины друзья пришли с женами и детьми. Какое счастье, что мелких оставили, не взяли с собой! Пашка и Женька младше меня на два года, поэтому я сегодня буду ими командовать. Как стемнеет, будем рассказывать страшные истории. А у родителей гулянье полным ходом: слышны тосты, звон стаканов. Предсказуемо, все нахваливают папин борщ. Под это пропускают еще по стаканчику, потом еще. О, народ дошел до нужной кондиции. Мужчины начали петь. Так душевно! Какие голоса у всех красивые! И неизменный аккомпанемент: ладони, стол, хащи, стакан.

Ближе к ночи женщины уводят домой своих опьяневших мужей и сонных детей. Все уставшие, но с приподнятым настроением. Моя мама всем собирает тормосок из оставшихся закусок. По традиции. Папа еще бодрится, но едва держится на ногах, и мы отправляем его спать. А мы с мамой разгребаем последствия посиделок, убираем, моем, вытираем, расставляем.

«Знаешь, в суматохе у меня не было времени поесть. А давай попьем чаю?»

«Давай», - соглашаюсь я, ставя чайник на плиту.

К чаю у нас выставлено всё как надо, мы же в России живём: варенье, печенье, котлетки и пара закусок. Ммм, хорошо. А то я тоже уже проголодалась.

«Пашка-то сильно вытянулся, еще зимой намного меньше был. А Женька что-то совсем не хочет расти.»

«Мам, а в кого ему быть высоким? Даже я выше его родаков.»

«Ну да, ну да. А ты видела платье у тети Зои? Красивое, да? Она говорит, если что, знает, где достать хорошую одежду. Хочешь спросу?»

«Не, мам, не надо. Это дорого, наверно.»

Мамочка моя... Как давно мы так душевно не говорили, почти ни о чём, но с теплотой в сердце. За неторопливой беседой время пролетело незаметно. Вот уже и мамуля отправилась спать. Мой 24-часовой отпуск почти закончился. Заглядываю к родителям. Хочу запомнить их такими: папа пока живой, мама еще молодая. Обожаю новейшие технологии за эти возможности.

В какой год переместиться в следующий отпуск? За полгода придумаю. Еще есть время.

Sakhalin K-pop Dance Fest собрал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29 ноября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состоялся ежегодный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Sakhalin K-pop Dance Fest". Фестиваль k-pop впервые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в 2012 и с тех пор стал традиционным,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является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этом году 11-й фестиваль стал ярким завершением програм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зимней школы "Диалог с Азией", организуемой СахГ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риоритет 2030". Поэтому кроме островных любителей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поп-культуры на фестивал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студенты из крупных российских вузов, а также обучающиеся по обмену студенты из Кореи, Китая и Монголии.

В борьбе за звание лучших танцоров области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11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одготовили потрясающи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дарившие зрителям море позитивных эмоций. Кроме того, каждый гость фестиваля мог не только насладиться любимой музыкой, но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розыгрыше самых желанных призов для фанатов k-pop культуры - эксклюзивных альбомов-новинок от любим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С каждым годом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и навыки коллективов-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растут, подчеркнули члены компетентного жюр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Екатерина Че - артист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руководитель танцевальной студии «Аритмия», победитель фестиваля K-POP 2019 года; Егор Александров - хореограф, постановщик крупных обла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форум «ОстроВ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гимнастики,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единоборств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Ким Иль Нам (Чеплыгин Евгений) - участник "Танцы на ТНТ" 2-го и 5-го сезонов, основатель двух танцевальных студий: FLOWMOTION (Сахалин), NABKA DANCE (Москва), победитель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фестивалей и конкурсов России, СНГ, Азии.

Жюри конкурса присудило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Малые составы" группе «Perfect Sense» Team, в номинации "Большие составы" группе X-RAY. Призом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было отмечено выступление ансамбля Mustang.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мый фестиваль «Sakhalin k-pop Dance Fest» является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фанатов K-pop, а также позволяет участникам стать ближе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дарит яркие эмоции и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а особых талантов 2024"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0 ноября и 1 дека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яркое и красочное событие - фестиваль инклюзив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строва особых талантов 2024".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инвалидов,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3 декабря.

Около 500 участников из 6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показали инклюзивные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участников с известны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исполнителями, поэ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ейные творческие инклюзивные номер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Кроме того, на площадке фестиваля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анимацион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На фестивале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Химанг», группа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Партнера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и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гыль».

В РК появится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гражданина

27 декабря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 регистрации граждан РК. Он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внедрение мобиль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гражданина,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оформить все жители страны старше 17 лет, имеющие действующий пластиковый документ.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мобиль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нужно получить одноразовый QR-код, обратившись в центр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удостоверений с IC-чипом доступна возможно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переноса документа на смартфон. Для за-

щиты личных данных на смартфоне применены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ключая блокчейн и шифрование. Документ можно оформить только на одно моби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а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требуется его переоформление каждые три года. В случае утери смартфона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автоматически блокируется. С 27 декабря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в девяти регионах, после чего система будет внедрен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Голосование об импичменте Юн Сок Ёлю состоится 7 декабр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обладающая парламентским большинством, назначила голосование об импичменте Юн Сок Ёлю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на 19 часов 7 декабря.

Как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артии Чо Сын Рэ, законопроект об импичменте поступил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в 00 часов 48 минут 5 декабря. Его подписали 192 человека - 190 депутатов от шести оппозиционных партий, в том числ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артии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Партии новых реформ, Прогрессивной партии, Партии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и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а также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У Вон Сик и независимый депутат Ким Чжон Ми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законопроекту об импичменте должно пройти не ранее 24 часов и не позднее 72 часов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документа профильным парламентским комитетом, то есть, с 00 часов 49 минут 6 декабря до 00 часов 48 минут 8 декабря. Законопроект будет считаться принятым, если за него проголосуют две трети депутатов, то есть, не менее 200 человек. Учитывая, что его поддержали 192 депутата, для объявления импичмента необходимо набрать не менее 8 голосов депутатов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Руководств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дало в отставку

Руководств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объявило 4 декабря об уходе в отставку в связи с ситуацией в стране, сложившейся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его отмены спустя шесть часов. Коллективное заявление об отставке подписали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Чон Чжин Сок,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ин Вон Сик,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олитики Сон Тхэ Юн и семь старших секретарей.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е сообщил заранее о планируемом объявлении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даже своим ближайшим соратникам.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абочего дня 3 декабря они покинули зда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о вскоре им было дано указание вернуться на работу.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отменил свой рабочий график на 4 декабря, в том числе, совещание по борьб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наркотиков. Отложен также визит в Сеу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Швеции Ульфа Кристерссона, который планировался с 5 по 7 декабря. Новые сроки визита не названы.

Лидер КНДР встретился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оссии

29 ноября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ровёл «дружескую и доверительную» встречу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Андреем Белоусовым.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им Чен Ын осудил США и Запад за разрешение Украи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ракеты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для ударов по России, назвав этот шаг «прямым военным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рмия и народ КНДР будут неизмен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литик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защите сво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от попыток империалистов добиться гегемонии». В сообщении не упоминается, обсуждали ли Ким Чен Ын и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развёрты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в России. В ходе визита в Пхеньян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провёл также переговоры со свои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ой Но Гван Чхолом. Как сообщает ЦТАК,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укрепле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и так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армиями двух стран.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к дальнейшему расширению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лож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нештатный персонал школ РК проведёт забастовку

Внештатный персонал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кол, в том числе, лаборанты, помощники учителей, библиотекари и работники столовых – проведут 6 декабря однодневную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ую забастовк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офсоюзе внештатных шко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забастовка проводится с целью прекращения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о оплате труда и условий занят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союза напомнили, что с июня до конца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они неоднократно вели переговоры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7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управл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достичь не удалось. Профсоюз требует повышения оплаты труда, создания постоянной переговорной платформы,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в школьных столовых 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выплат в период школьных каникул. Аналогичная забастовка проводилась 31 мар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огда в 10,47% школ Сеула произошёл сбой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итания, и учащимся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хлеб и молоко в качестве обеда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резко обострилось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президента и парламента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на экст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 резолюцию с требованием отменить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з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до этого вве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шел на такой шаг, обвинив парламент, где доминируют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тивники, в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Впрочем,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осудила не только оппозиция, но даже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Юн фактически подписал себе приговор и с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дело дойдет до импичмента, учитывая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страны и настроения в обществе.

О своем решении Юн Сок Ёль объявил поздно вечером 3 декабря в ходе экстренно созванног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овещания в районе Ёнсан Сеула. "В целях ликвидации просевеорокореических сил и ради сохран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порядка я объявляю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стране", - заявил он. Если говорить более конкретно, то во всех проблемах гла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бвинил парламент, который контролирует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ытались инициировать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процедуру импичмента и неоднократно требовали провести против жены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езависим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Юн Сок Ёль, впрочем, не стал акцентировать внимание на этих деликатных для него вопросах, указав вместо этого, что парламент 22 раза инициировал законопроекты об импичменте различным госслужащи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страны, в связи с введенным военным положением в ведомстве состоялось экстренное совещание командования,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были даны распоряжения о введении повышенной боеготовности во всех частях и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К.

Решение вызвало в Южной Корее шок, в том числе и в рядах правящих сил. Глава про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Хан Дон Хун, который считался ранее соратником Юна и был в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заявил, что "решение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является неверным". "Мы вместе с народом заблокируем его", - подчеркнул он. Лидер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анти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и попыткой "вести военное правление в стране". Депутаты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которые имеют большинство в парламенте РК, были созваны в парламент на экст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обвинил парламент в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и ввел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Депутаты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его отмену

Позже за отмену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роголосовали 190 депутатов - все, кто смог пройти в здание парламента, которое с вечера блокировали полиция и военные. "Мы объявляем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недействующим. Просим народ успокоиться. Парламент вместе с народом защитит демократию", - заявил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Он также обратился к военным и полиции с требованием покинуть комплекс,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все происходит в рамках закона и никакой экс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нет.

Согласно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имеет право ввести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днако, если большинство депутатов парламента примут резолюцию с

требованием о его отмене, то президент обязан это сделать. Учитывая, что в парламенте РК около 300 депутатов, а внутрь смогли пройти 190 и все они поддержали требование об отмен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то Юн Сок Ёль не сможет без нарушения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сохранить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Внезапное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протесты в обществе. В ответ на решение командующего военным положением генерала армии Пак Ан Су запрети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парламента, перед зданием последнего в Сеуле стали собираться протестующие, которые вступили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с полицией и военными. Ситуация накалялась, некоторые демонстранты пытались отталкивать полицейских в оцеплении. В ответ офицеры, которые руководят охраной, угрожали протестующим не доводить дело до стычек. Полиция блокировала проход для обычных граждан, тогда как военные прорывались в парламента, где находились депутаты. Депутаты применили против военных огнетушители, тогда как солдаты разбили окна и ворвались в парламента.

Позже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но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бывает в состоянии оцепенения. Для подавляющего большинства корейцев казалось, что эпоха военных положений и переворотов ради борьбы с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ротивниками ушла давно в прошлое. Жестк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конкурирующ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 обычное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дело, но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ставалось своего рода табу, линией, которую нельзя переступить.

В этой связи многие политологи предвещают 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теперь незавидн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участь.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что он попытается прибегнуть к армии и полици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орядка, но вряд ли за ним пойдут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Учитывая, что даже лидер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осудил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все пойдет по сценарию массовых манифестаций протеста и импичмент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инициирован парламентом. С поддержкой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даже ее части, оппозиция легко наберет две трети голосов, чтобы отстранить президента от власти и передать дело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Для корейцев жестк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с объявление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тал шоком - такие приемы борьбы считались запрещенными

Как с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в итог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не выдержал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 парламентом, где уже второй срок подряд уверенно доминируют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оппоненты, и попытался применить силу, что в итоге сыграло против него. Оппозиция постоянно требовала инициировать процедуру независим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подозреваемых по поводу его жены, на что Юн неуклонно накладывал вето. Кроме того, стали говорит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мпичмента самому Юну, а его рейтинг упал до рекордно низ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шли также слухи, что часть депутатов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могут в итоге поддержать невыгодные для президента и его жены законопроекты, позволив преодолеть и президентское ве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 (3-4 декабря, Сеул, РФ)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обелевских премий состоится 10 декабря

10 декабря в Стокгольме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обелевских премий в пяти категори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ремии Мира. Премия по литературе будет вруче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Хан Ган. Она стала перв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ей Азии, удостоенной этой высокой награды. В программе церемонии – представления лауреатов, получения Нобелевских медалей из рук короля Швеции Карла XVI Густава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речи награжденных. Период с 5 по 12 декабря объявлен «Нобелевской неделей»,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остоятс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лекции и публичные чтения. 6 декабря Хан Ган выступит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где ответит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7 декабря в Нобелев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часовая лек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священная творчеству Хан Ган. Лекция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YouTube.



KBS World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марафона «Знание. Первые обсуд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Георгием Будным. Совещан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планам по развитию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5 году.

— Мы стреми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центром культуры и нау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егионе строится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на 8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учебных и лабораторных площадей, куда мы приглашаем ученых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амых разных областей знаний. Мы открыли «Школу 21», где готовим собственных IT-специалистов, создали центр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азвиваем водород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егион стал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интеллигенци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у нас создано два оркестра, открылся фи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училища, проектируется театр оперетты. Развивать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 важ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ая стоит перед нами. В ее ре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Знание» стало нашим ближайшим партнеро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дир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Георгий Будный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число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регионов, где созданы областной филиал и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динамика по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выросла в 1,5 раза.

На совещани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в мае 2025 года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марафона «Знание. Первые». Он будет посвящен 80-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ервый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марафон состоялся в мае 2021 года. Проект стал популяр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ямого общения между первыми лиц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молодежью. В марафоне регулярно участвуют жители нов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Это флагман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два раза в год. С учетом и тематики грядущего марафона, и ро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одно из самых подходящих мест для его провед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Георгий Будный.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а Апенюков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Геннадий Лудан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а также член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и лекторы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заседании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планы на 2025 год. В год 80-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ден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мероприятий, в которых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лектор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в качестве лекторов по своей тематике. Для этого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план ежекварта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Знание» ведет свою историю от совет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снованной в 1947 году. В 2021 году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ерезапустил работу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ведет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современной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е.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руководств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два проекта школьных родительских комитет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шли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инициатив родительских сообществ, объявл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Знание»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Премии до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создание досугового клуба выиграла школа № 3 имен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А. Булгаков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граду д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ит гимназия № 3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проект об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туризме для молодежи. Также сахалинц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конкурсе общества «Родная игрушк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поддержку и продвиж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гр и игрушек.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Знание» выпустит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о Сахалине, съемки которого прошли в этом году. Съёмочная группа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бывала на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и организациях регион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ТЭЦ-1, в Совхозе «Тепличный», на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м завод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водорода и др.

В ноябре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аэровокз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бил рекор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 11 месяцев главная воздушная гавань региона обслужила 1 345 018 пассажиров. Осень сотрудники аэровокзала отработали на уровне высокого сезона. Услугами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этот период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354 928 пассажиров. В сравнении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трафик вырос на 8%.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крупнейший и самый технологичн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ассажирский терминал. И за первый год работы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вырос на 10,5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казателями прошлого года. Аэровокз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жегодно обслуживает 1,4 миллиона пассажиров на внутренн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Его партнерами являются семь крупн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Аэрофлот, Аврора, Россия, S7, Арт-Авиа, Уральские авиалинии, ИрАэро. Постоян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маршрутная сеть: сегодня она включает регулярные и чартерные рейсы по 21 направлению»,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Ноябрь тоже оказался плодотворным для воздушных ворот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Специалисты комплекса обслужили 97 092 человек, 458 бортов на вылет и 479 — на прилёт. Наибольш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островитян традиционно пользовались рейсы в Москву, Новосибирск, Владивосток, Хабаровск и Красноярск.

Вместе с перевозками пассажиров в аэровокзале вырос и грузовой трафик. За последние 30 дней авиагавань приняла 29 грузовых рейсов из Москвы, Красноярска, Новосибирска и Китая. Общий объем отправленного груза и почты составил 212 561 килограмм, принятого — 1 549 тонн.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осени команда аэровокзала провела на уровне высокого сезона. Сбавлять обороты по пассажиро- и грузопотоку в декабре мы не планируем. Более того, уже сегодня можно прогнозировать прирост показателей. Зимой мы ожидае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транзитный рейс на Москву со стыковкой в Красноярске, будем наращивать объемы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ок к Новому Году,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Аэровокз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услан Степанец.

Кром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аэровокз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ктивно улучшал в ноябре сервисы и услуги. Так, в начале месяца команда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совместно с авиакомпанией «Аврора» проработала план действий в снежные циклоны, в середине — смонтировала новый книжный стеллаж, который успел полюбить пассажирам, а в конце месяца — запустила электрические зарядные станции для авто.

Напомним, чт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транс договорился с перевозчиком об увеличении частоты полетов в Москву и обратно на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ах. «Аэрофлот» выполнит по одном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рейсу в столицу и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 26 по 30 декабря, а также 7, 8, 9, 10, 12, 13 и 14 января. Полеты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на воздушных судах повышенной вместимости Airbus A330-300 (378 мест).

Врачи призываю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льзоваться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ается небольшой подъем сезонной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ОРВ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ыстро и безопасно справиться с болезнью, врачи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ют пользоваться только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регистрируется ввоз контрафактных медикаментов иностра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лечения ОРВИ и гриппа. Такие средства содержат запрещенные вещества и могут приводить к развитию побочных явлений, осложнений и наркот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

Более 100 наименований лекарств для симптоматического лечения ОРВИ, еще не менее 30 — противовирусных. И каждое из средств —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и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о по действующим медицинским и фармакологическим стандартам. Такой ассортимент препаратов предлаг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аптеки для болеющи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Но даже при таком разнообразии у потребителя есть шанс приобрести средство, которое может не только ухудшить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но и привести к проблемам с законом.

— Мы получаем информацию, что в ряде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на Сахалине незаконно продается японский препарат для лечения ОРВИ. Он содержит наркотические вещества.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рименения может возникнуть обманчивый эффект быстрого выздоровления,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за счет определенных химических реакций. Но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это действие прекращается, у человека наступают различные побочные явления и формируется зависимость. К тому же употребление таких средств противозаконно и приводит к уголовному наказанию,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Анна Васильченко.

В практике действующих врачей возможно назначение только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При их назначении специалист оценивает большой ряд параметров — состояние человека, анамнез, сочетаемость с другими средствами, беременность, возраст.

— Лекарств множество. В то же время врач проверяет переносимость препарата, аллергию — для каждого нужно подбирать индивидуально. В случае продажи не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ого, контрафактного лекарства продавец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здоровье пациент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Ангелина Суслов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низить риск заболевания и возникновения осложнений, специалисты рекомендую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амым эффективным методом —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По данным ВОЗ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массовой иммунопрофилактике удалось снизить интенсивность

эпидемий гриппа во всем мир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можно до конца декабря в любой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районных центрах на городских площадях для этих целей также установлены мобильные пункты.

Большая часть льготных паци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а препараты для лечения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здоровья пациентов с онко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тупил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ей недели. Созданных запасов хватит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это время продолжают поставки и заключаются контракт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с начала 2025 года. Работа по охвату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остоящих на диспансерном учете, не прекращается и в выходные дни.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отрудников аптек и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большинство пациентов уже получили свои лекарства.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подбираю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и обязательны для строг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по определенной схеме. С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таким больным пришлось поволноваться — к очередной дате обеспечения медикаментами оказывалось, что не все средства имеются в наличии. Запросы пациентов начали массово поступать персональ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администраторам, от них по цепочке ситуация дошла до губернатора — инициатора проекта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 Создание проекта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пациенты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ся своим здоровьем, увеличилась выписка лекарств. Наша работа выстрое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 у каждого пациента есть свой план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который назначается лечащим врачом. Мы видим в своих планах даты приемов,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цедур, выдачи лекарств. О каждом пункте напоминаем. Никто не останется без лекарства, — рассказала проводник здоровья Анастасия Ермоленко.

Работу своего проводника оценила одна из пациенток,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дежда Афанасьевна. Со своим диагнозом женщина живет больше 10 лет, привыкла к стабиль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лекарствами. Сбой в доставке препаратами вызывает у нее тревожность. Но проводник здоровья старается не допустить ухудшения состояния.

— У меня была ситуация, когда таблеток оставалось на два дня. Вместе с проводником решили эту проблему, она весь вопрос взяла на себя. И сейчас снова она мне помогает, вчера назначили лекарство, сегодня я его получила, — поделилась женщина.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лекарствами не прекращается и в выходные дни. На аптечном склад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аркировка поступивших партий, в аптеках продолжается обзвон пациентов и отпуск лекарств.

— Проблемы были по всем группам препаратов. Сейчас ситуация разрешилась, лекарства поступают регулярно. Мы формируем списки пациентов, передаем их проводникам, чтобы у всех была самая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поступлению и потребности, — уточнила заведующая аптекой 44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на Макаренко.

В эти дни продолжается активный обзвон жителей.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рекомендуют откликаться на телефонные звонки — за каждым пациентом на диспансерном наблюдении закреплен персональный специалист, его телефонный номер заранее сообщается, и он обозначен в приложении «Острова 65». Напоминаем, что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м срочно требуются медикаменты, могут обращаться к свое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администратору по единому номеру: +7 (950) 300-65-00. Если вы забыли добавочный номер — узнать его можно по 1-300. Оператор контакт-центра примет звонок и передаст обращ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му администратор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тит на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прямом эфире

Прямая ли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остоится 10 декабря, в 15:00 на телеканале «ОТВ-Сахалин», а также в официальных групп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ортал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Sakh.online» ВКонтакт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ответит на десятки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больше всего волнуют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екстовая трансляция такж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официальном Telegram-канале губернатора «Лимаренко Brief».

Оставить обращение губернатору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8(4242) 670-391.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 3 декабря.

Кроме того, вопросы принимаются в видео- или текстовом формате с пометкой «прямая линия»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ПОС),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опросы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в личных аккаунтах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Телеграм (https://t.me/limarenko_official);
 - Одноклассники (<https://ok.ru/valery.limarenko>);
 -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limarenko_official).
- Также обращ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на страницах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 Телеграм (<https://t.me/s/tsur65>);
 - Одноклассники (<https://ok.ru/tsur65>);
 -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tsur65>).

Все поступившие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обращения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их авторы обязательно получают ответ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정책자문 "정부내 산재된 동포업무 한데 모아야"

12월 2일 이상덕 청장 주재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청, 컨트롤 타워 돼야"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들이 "정부 부처에 산재된 재외동포 업무를 동포청을 중심으로 한데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12월 2일(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청사 36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인기 경인고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위원인 김영길 민주평통 운영위원, 이진영 인하대 교수, 박기태 반크 단장, 강성철 연합뉴스 기자, 최병천 월드코리아 신문 편집이사, 신연정 차세대 위원이 참석했고, 해외 거주하는 민미소, 최미영 위원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상덕 청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 업무를 일원화하는데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동포청이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포청을 중심으로 동포 업무를 모아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동포정책의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취지를 살려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 조정과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동포정책의 비전 제시 △재외국민교육법 등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의 정비 △동포담당영사 재외공관 파견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교섭 및 이니셔티브 확보 등을 주문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외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범 2년차를 맞는 재외동포청이 중심이 되어 동포 업무를 일원화·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이



내년부터 추진할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포청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분들을 찾아,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모국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노력과 성과가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면서

-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발표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동포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자문위원들은 △거주 지역 동포사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객관성과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 △차세대동포를 선정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동포 명예의 전당」을 기획해서 재외동포를 기리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정부 내외에 산재한 동포 업무를 효율화하고, 동포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이라는 더 큰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인천공항에 '민원실 인천분소' 열었다

12월 2일 제2여객터미널서 개소식 개최...

"재외동포와 소통하는 또 하나의 창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2월 2일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기존 송도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2층 정부종합행정센터)로 이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신연정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에 분소가 개소됨으로써 출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연정 정책자문위원은 "재외동포청 민원실은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다리"임을 강조하면서 "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의 인천공항 이전은 재외동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강력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기대감을 표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기념사에서 동포청의 광화문 통합민원실과 인천분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면서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만나는 첫 공간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포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좌측부터: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신연정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운영을 개시한 재외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는 국적·출입국·병무·세무·가족관계·고용·보훈·교육·국민연금·건강보험·운전면허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광화문 통합민원실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 아울러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재외국민 귀국신고 등 해외이주 민원서비스도 일부 제공한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국민, 이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 개시로 더 다양한 인증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은 11월 28일(목)부터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와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지난 3월 상거 관계부처들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24.3.11.) 이후, 기관 간 실무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고,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①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②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③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A씨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신원확인을 위해 매달 요금을 납부하며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재외국민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포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로서,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11월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 중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속 추가하여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 기존 계좌 보유자

한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 금융서비스 ***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이를 기념하여, 동포청(청장 이상덕, 센터장 김연식)과 방통위(사무처장 조성은), 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디플정위(서비스혁신국장 이병연),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 김정희), 국민은행(사무 박형주), 비바리퍼블리카(부사장 김규하), 신한은행(부행장 임수한), 우리은행(부행장 김범석), 하나은행(부행장 이선용)은 시범서비스 개시에 맞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관의 기념사·축사 등 및 5개 사업자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서비스 온라인 현장 시연과 개소식을 진행하여 서비스 개시에 대한 기념과 함께, 많은 재외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많은 기관과 기업의 노력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가 개시됨을 축하한다" 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병연 서비스혁신국장은 "재외국민이 다양한 신원확인 수단을 제공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국민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동포사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후 동포 권익 향상에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것이며, 시범 서비스지만 동포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존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시 국내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인증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에 방문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다"며, "이번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서,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Также экскурсоводы центра подготовили кинолекторий под названием «Роль второго план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кино».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расскажут о том, в каких фильмах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фигурировал как место съемок.

'오존' 온라인 쇼핑몰에 '사할린 특산품' 항목 설치

사할린주 경제개발부는 '오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지의 특산품 홍보를 추진하는 등 사할린 사업가들에게 광범위한 종합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오존' 쇼핑몰에는 '사할린 특산품' 플랫폼이 생성되었다. 현재 극동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할린 생산제품들은 기념품, 사할린의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의상과 라이스페이퍼에 그린 독특한 그림, 수제 장난감, 생산제품 등 기타 제품들이 올라 있다. 사할린 경제개발부는 '오존' 쇼핑몰 항목에 다른 생산품들도 초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이 비즈니스(나의 사업)' 센터를 반드시 찾아가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서 획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사할린의 생산품 진출 사업은 '중소기업가'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할린주 경제개발부의 알렉세이 우스펜스키 장관은 "지역 생산품이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해 판매 및 홍보하는 것은 지역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며, 전체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오존' 쇼핑몰에 일련의 '사할린의 특산품' 판매 홍보는 지역 생산자들과 수공업자들이 더 넓은 시장 무대에서 자체 생산품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На маркетплейсе «Озон» создали витрину товаров «Сделано на Сахалине»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 широкий комплекс мер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ым бизнесменам, куда, в том числе, входит и продвижение товаров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 маркетплейсе «Озон». На платформе уже создана витрина «Сделано на Сахалине».

Среди товар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уже сейчас приобрести жители не тольк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всей страны, представлены сувениры, одежда от островных дизайнеров, уникальные картины, выполненные на рисовой бумаге, игрушки ручной работы, рыбная продукция и другие. Сахалинский минэк приглашает и друг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 витрину Озон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Также важно пройти сертификацию товаров в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е региона. Работа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остров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Открытие витрины с местными товарами важный шаг на пути к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изнеса и значимое событие для всей экономики. Полка «Сделано на Сахалине» на маркетплейс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ремесленников заявить о себе на более широкой арене,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사할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새해 선물

수퍼잡(SuperJob)서비스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해 가장 원하는 선물은 응답자의 20%가 여행관광상품을 원했고, 현금이 16%였고, 전자 기기들도 높은 지지를 받을 가운데 응답자의 10%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원했다.

자기계발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교육 과정 인증서였고, 이런 방식의 선물을 선택한 응답자는 9%에 해당됐다. 생활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좋아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5%는 새로운 가전제품을 원했다. 취미와 미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4%는 화장품세트, 스포츠 장비, 상품권,

책들을 원했고, 일부 보석류나 극장 관람권, 수리 및 건축 도구, 건강제품, 가정용 장식품을 위한 응답자는 3%였다.

여성들은 주로 여행상품권과 화장품, 상품권, 책을 더 선호했고, 남성들은 현금과 스마트폰, 스포츠 용품, 기구를 더 원했다.

젊은 세대들 (35세 이하)은 주로 현금이나 전자기기용품, 교육과정 증명서를 더 원했고, 45세 이상의 중년세대는 여행상품권을 원했다. 근로자 중 월 10만 루블리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행상품권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Сахалинцы назвали самые желанные подарки на Новый год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сервиса SuperJob среди работающего насел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иболее желаемым подарком являю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путевка, за которую проголосовали 20% опрошенных, и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 16%.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устройства также занимают высокие позиции: смартфоны, планшеты или ноутбуки желают 10% респондентов.

Для тех, кто стремится к личностному развитию, самыми желанными подарками стал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курсы. За этот вариант голоса отдали 9% опрошенных. Любители комфорта и уюта предпочитают новую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5%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ждут именно такой презент. Красота и хобби также нашли своих сторонников: наборы косметики, спортивный инвентарь,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и книги набрали по 4%. Некоторые респонденты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получить ювелирные украшения, билеты в театр,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ремонта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овары для здоровья и предметы интерьера. Сторонников данных категорий подарков набралось по 3%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опрошенных.

Женщины чаще предпочитают получать в подарок путешествия, косметику,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и книги. Мужчины более склонны желать денег, смартфоны, спортивные товары и инструменты.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до 35 лет) чаще выбирает деньги, гаджеты 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курсы. Люди старше 45 лет чаще мечтают о путешествиях. Те, кто зарабатывает боле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особенно жаждут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утевок.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Р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